

1930년대 농촌·민족·소설로의 회유(回遊) - 심훈의 『상록수』론

김 경 연*

차 례

- | | |
|--------------------------------|------------------------------------|
| I. 머리말 | IV. 아이들 혹은 동족(同族)의 발견 |
| II. 식민지 지식인 심훈의 하방(下方)과 지적 행로 | V. 계몽운동의 젠더- '쌍두취행진곡'에서 '최후의 일인'으로 |
| III. 구별 짓기의 정치학 - 언어·복장·질병의 수사 | VI. 맺음말 |

I. 머리말

심훈(본명 심대섭, 1901~1936)의 행적을 추적하다 보면 심훈 자신이 명쾌하게 해석되지 않는 일종의 텍스트임을 발견하게 된다. 언론계, 영화계, 문단을 넘나들면서 다양한 지적 편력을 보였던 그는 '소설가'라는 단일한 호명보다 이질적인 영역들을 횡단하며 문화·예술 전반을 섭렵했던 '문화인'이라는 명명이 더욱 적합해 보인다. 그의 문화적 관심 역시 소설에 국한되지 않고 시의 영역을 아우르는 것이었다. 이 다기하고 특

* 부경대학교 강사

이한 이력으로 하여 심훈은 한국 근대문학사에서 독특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작가로 평가받아 왔다.

심훈이 온전히 소설로, 특히 그의 가장 두드러진 예술적 성취로 평가 받는 '장편소설'로 복귀한 것은 1930년대를 전후한 무렵이었다. 1919년 경성고등보통학교 4학년생으로 3·1운동에 참가했다 투옥되기도 했던 심훈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3·1운동 참여자들의 영어생활을 그린 소설 <찬미가에 싸인 원혼> (『신청년』 3호, 1920. 8. 1)을 발표한다.¹⁾ 그러나 주로 소설을 창작하며 짧은 문학 습작기를 보내던 그는 1920년 중국으로 건너간다.²⁾ 3년간의 망명 유학을 끝내고 귀국해 『동아일보』(1924~1925)와 『조선일보』(1928~1931)에서 기자 생활을 했던 심훈은 소설가보다는 언론인으로서의 행적이 두드러졌고, 20년대 내내 연극이나 영화에

-
- 1) 한기형, 「습작기(1910~1920)의 심훈」, 『민족문학사연구』 2003년 상반기, 192쪽. 한기형은 이 논문에 심훈의 소설 <찬미가에 싸인 원혼>을 발굴해 수록하고 있다. 심훈은 일기(1920. 3. 16.)에 이 작품이 1919년 3·1 만세운동에 연루돼 투옥된 천도교대교구장이 돌아갈 당시와 그 시체를 보고 느낀 감상을 쓴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일기』, 『심훈문학전집』 3, 탐구당, 1967, 604쪽.)
- 2) 이 책에 수록된 심훈의 일기에는 중국으로 떠나기 전인 1920년 무렵 <생리사별>, <폐가의 월야>, <꽃의 설움>, <여울의 낙일> 등 10편 정도의 소설을 창작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일기와 더불어 전집 3권에 실린 연보에 따르면 심훈은 1919년 3·1운동에 가담했다 투옥되어 집행유예 처분을 받고 7월 출옥했으며, 이듬해 집안의 반대로 일본 유학의 뜻을 접고 중국으로 망명 유학을 떠나게 된다. 심훈의 일기를 읽어 보면 일본 유학에 대한 심훈의 의지는 상당히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1920년 1월 31일의 일기에는 “나의 일본 유학은 벌써부터의 宿命이요, 갈망이다. 여기만 있어 가지고는 아주 못할 것은 아니나 내가 목적하는 문학 길은 뉘기가 극난하다. 아무리 원수의 나라라도 西洋으로 못 갈 이상에는 東洋에는 일본 밖에 가 배울 곳이 없다. 그러나 내 주위에는 그를 용서치 않는다. 그러나 나는 기어이 봄 안으로 가고야 말 심산이다”(591쪽)라고 적혀 있다. 중국에 간 심훈은 북경대학의 문과를 다니며 극문학을 전공하려 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포기하고 프랑스로 건너갈 생각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집안의 반대와 경제적 사정으로 이 역시 좌절되고 이후 상해, 남경 등을 거쳐 항주 지강대학에 입학하게 된다. (『심훈문학전집』 3, 탐구당, 1967, 506-507쪽, 634쪽, 한기형, 앞의 글, 194-204쪽 참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1923년 이경손·최승일·김영팔·안석주·임남산 등과 더불어 신극연구단체인 ‘극문화’를 조직하기도 했다³⁾ 심훈은 1924년 염군사에 가담했을 당시에도 문학부가 아닌 ‘극부’에서 활동했다고 한다.⁴⁾ 1925년 심훈은 이경손이 연출한 <장한몽>의 이수일 역 후반부를 대역하게 되는데, 이를 계기로 영화와 본격적인 인연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이후 심훈은 1926년 우리나라 최초의 영화소설 <탈춤>을 발표했고, 1927년에는 영화공부를 위해 일본으로 건너갔으며 짧은 도일(渡日) 이후 귀국해 첫 영화 <면동이 틀 때>를 만들었다.⁵⁾

그런데 『조선일보』에 소설 <동방의 애인>이나 <불사조>를 연재하던 1930년 무렵, 문학으로 출발했던 심훈은 언론, 연극, 영화를 경유하여 다시 문학으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인다. 줄곧 언론인이자 영화인이었던 그는 1930년을 통과하면서 사망한 1936년까지 ‘소설가-심훈’이라는 단일한 정체성 속에 귀의했던 것이다. 이 전회의 중심에 『동아일보』 창간 15주년 기념 ‘장편소설 특별공모’에 당선된 심훈의 <상록수>(1935)가 있다.⁶⁾

1930년대는 모든 면에서 심훈에게는 일종의 회유(回遊)⁷⁾의 시기였다. 언론인·영화인·연극인, 그리고 시인이라는 혼종적 표지의 담지자였던 심훈은 1930년대에 소설가 혹은 문사(文士)라는 단일한 의미망 속으로 안착했을 뿐만 아니라, 1920년대 조선에서 중국으로, 식민지 조선에서

3) 「일기」, 『심훈문학전집』 3, 635쪽, 최원식, 「심훈연구서설」, 『한국근대문학사의 쟁점』, 창작과비평사, 1990, 235-243쪽 참조.

4) 주인, 「심훈 문학 연구 방법에 대한 서설」, 중앙대 『어문논집』 제 34집, 2006, 254-255쪽 참조.

5) 「연보」, 『심훈문학전집』 3, 635쪽 참고.

6) 당시 동아일보는 ‘농촌계몽운동’을 소설의 제재로 정한다.

7) ‘회유’는 식민지 시기 조선인들의 유학을 일종의 ‘회유현상’으로 분석한 박선미의 연구에서 빌려온 용어이다. 박선미는 유학을 식민지 조선 밖으로 나가는 사회적 이동만이 아니라 ‘마을에서 메트로폴리스로, 다시 마을로’ 돌아오는 식민지적 순환을 이루고 있으며, 따라서 유학이라는 사회문화적 순환을 ‘회유’에 비유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박선미, 『근대 여성, 제국을 거쳐 조선으로 회유하다』, 창비, 2007, 12-13쪽 참조)

식민본국인 일본으로 무단히 국경과 국경을 넘나들며 이동했던 그는 1932년부터 충남 당진으로 하방해 정주하게 된다. 중국의 북경이나 상해, 제국의 수도인 동경과 같은 메트로폴리스를 유동했던 심훈은 1932년 돌연 식민지의 변방인 충남 당진행을 선택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 급격한 회유의 시기, 1920년대 내내 지적 모험을 감행해 왔던 심훈의 모호한 사상적 궤적 역시 어떤 단일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1운동에 참여하면서 민족을 자각했으나, 이후 염군사의 일원으로 카프와도 관계를 맺으면서 민족·민족성·민족주의라는 특수성보다 계급·계급성·사회주의라는 보편성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기도 했던 심훈은 1930년대 들어 다시 민족이라는 특수성을 천착하고 있는 것이다. 『동아일보』가 주관한 브나로드 운동(1931~1934)의 소설적 재현인 <상록수>는 사회주의라는 보편보다 민족 내지 민족주의로 귀의하는 작가 심훈의 사상적 회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이라 판단된다.

심훈이 내보인 다양한 사상적 이력 때문에 <상록수>에 대한 해석은 분분할 뿐만 아니라 그 평가 또한 상반된 경우가 많다. 주지하다시피 실력양성을 통한 점진적 독립을 주장한 민족주의 우파 진영인 『동아일보』가 주관한 것이 브나로드 운동이었고, 이 운동을 배경으로 그 성과와 한계를 결산하는 소설이 <상록수>라는 점에서 이 소설을 우파 민족주의의 논리를 담지한 작품으로 평가하면서도, 20년대 내내 심훈이 보여준 사상적 궤적으로 하여 <상록수>를 단순히 우파 민족주의의 논리를 낭만적으로 재현한 소설로 규정하는 데는 대개 유보적이다.

20대 초반 중국으로의 낭만적 탈출을 감행했던 심훈은 신채호나 이회영 같은 무정부주의자의 문하에 출입했고, 여운형과 교류했으며, 귀국 후 염군사에 가담했고, 카프의 창립회원이기도 했다. 그러나 한설야·임화 등과의 격렬한 논쟁을 벌이면서 이들이 주도권을 잡은 카프와 일정한 거리를 두게 된다. 『동아일보』 시절 박헌영 등과 함께 “우리나라 언론사상 최초의 기자단체에 의한 급료 인상 투쟁”⁸⁾으로 기록된 ‘철필구

락부' 사건으로 퇴사한 심훈은 신간회(1927~1931)의 지도자였던 홍명희의 강력한 자장 아래 있기도 했다. 때문에 <상록수>에 대한 기왕의 논의들은 대개 『동아일보』 편집국장이었던 이광수가 1932년에 쓴 농촌계몽소설 <흙>과는 사상적 측면에서 변별되는 “일제에 항거하는 민족주의 정신”⁹⁾을 구현한 작품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회유’의 시기에 창작된 <상록수>는 단순한 항거라기보다는 심훈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든, 개조와 갱생, 실력양성과 점진적 독립으로 대변되는 우파 민족주의의 논리를 상당 부분 흡수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본고는 <상록수>를 통해서 식민지와 제국, 민족이라는 특수성과 이념이라는 보편성, 문학과 문화(영화·연극) 사이를 부단히 유동했던 심훈이라는 텍스트, 말하자면 식민지 지식인의 한 전형인 심훈이 1930년대 중반 식민지·민족·문학으로 귀의하는 지점을 읽어 보고자 한다. 심훈을 식민지¹⁰⁾·민족·문학으로 견인한 논리가 무엇인지 가늠해 보면서, 그가 <상록수>를 통해 조선인들을 민족으로 새롭게 전유하는 방식을 살피는 것도 이 글의 주요한 목적이다. 민족이라는 집단적 주체를 새롭게 구성하기 위해 배제되는 존재들과 그들을 배제하는 방식, 이들을 타자화하면서 승인하는 ‘민족’의 정체를 검토하면서 1930년대 심훈이 도달한 민족주의의 내막, 농촌-민족-소설의 친연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 비교적 간과되었던 남성 계몽 주체인 박동혁과 여성 계몽 주체인 채영신의 관계에 주목해 민족주의와 젠더의 문제 역시 검토할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먼저 1930년대 심훈의 하방(下方)과 하방하기까지 그

8) 정진석, 『일제하 한국언론투쟁사』, 정음사, 1975, 174쪽.

9) 류양선, 「<상록수>론」, 『한국현대문학연구』 제4집, 한국현대문학회, 1995. 2, 11쪽.

10) 앞으로 구체적으로 논의하겠으나 ‘농촌’ 혹은 ‘고향’은 ‘식민지 조선’의 알레고리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가 걸어간 지적 행로를 따라가 보고자 한다. 심훈이 발견한 농촌 혹은 고향의 의미, 그리고 그를 식민지·민족·문학으로 이끈 다양한 계기들을 살피는 것이다.

II. 식민지 지식인 심훈의 하방(下方)과 지적 행로

최원식은 「심훈연구서설」에서 1932년 충남 당진으로 내려간 심훈의 ‘하방’을 다소 이해할 수 없는 돌연한 사태로 기록한다. “혁명의 열정에 거침없이 자신을 던지는가 하면 카프의 공식주의적 경향에는 반대하고, 때로는 조흔한 아내에게 지순한 헌신을 맹세하는가 하면 당대의 무용가 최승희를 비롯한 신여성들과 화려한 염문에 휩싸이기도 하고, 영화에 열광했던”¹¹⁾ 심훈은 당대 가장 도시적인 ‘모던보이’였다. 문학(literature)이라는 서구의 박래품을 흉내 내면서 서구적인 문화와 조우했으나, 문학 습작을 하던 시기에도 심훈은 더 새로운 박래품인 연극이나 영화에 매혹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가 남긴 1920년의 일기에는 김소량, 김도산, 김영환, 안중화 등 당시 신파극을 주도했던 인물들과의 만남, 그들의 연극에 대한 관심 등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단성사에서 상영한 <씨빌리제이션>이라는 영화에 대한 인상도 적혀 있다. 영화라는 근대의 스펙터클에 매료된 20살의 심훈은 배우가 되고 싶다는 소망을 일기에 적어 놓기도 했다.

원동서 저녁을 먹고 아저씨에게 돈을 얻어 가지고 병섭 언니와 같이 단성사 활동사진 구경을 갔다. 세계의 유명한 <씨빌리제이션>이라고 하는 사진을 보게 되었다. 훌륭한 사진이다. 폭악과 전횡, 인도와 정의의 전쟁이다. 나는 많은 느낌을 얻었다. 깊은 인상을 새겼다.¹²⁾

11) 최원식, 앞의 글, 231쪽.

12) 「일기」, 「심훈문학전집」 3, 599쪽.

김도산 일행이 와서 다른 연쇄극을 한다 하기에 方君과 같이 갔다. (중략) 부산 부근을 배경으로 한 사진인데 통틀어 말하면 각본이 너무도 유치하다. (중략) 그러나 점차로 우리 극계도 발달하여감을 보면 기쁜 마음을 숨지 않을 수 없다. 나도 장래에는 劇도 해 볼 생각이다. 배우도 해 볼 작정이다.¹³⁾

‘정(情)의 만족’을 통해 전통의 ‘문(文)’과 새로운 ‘문학(literature)’의 구별 짓기를 시도했지만, 식민지에서 문학은 정서와 감각의 만족을 넘어 도덕과 정신을 개조(계몽)하는 장치로 항상 과잉결정 되었다. 때문에 서구의 식민지인 동양에서, 다시 동양 내의 식민지인 조선에서 문학이라는 제국의 박래품은 전통적인 문(文)과 혼란스럽게 뒤엎히는 양상이었고, 식민지의 작가들은 시인이거나 소설가이기 이전에 ‘문사(文士)’라는 호명이 더욱 익숙했다. 과거에는 존재한 적이 없던 영화는 전통과 근대가 여전히 착종되어 있는 당시의 문학보다 더욱 서구적이고 모던한 것이었다. 모던한 문학, 다시 더 모던한 영화에 매료돼 영화배우로 출연하는가 하면, 영화를 직접 만들기도 했던 식민지 청년 심훈은 최원식의 언급처럼 새로운 것, 더 새로운 것에 탐닉하는 당대 모던보이의 전형이었다. 그런 심훈을 시각적 감각으로 충만한 영화가 아니라 다시 자신의 기원, 즉 글(소설) 쓰기로 향하게 한 것은 무엇일까.

소설가로 변신할 무렵, 스스로 파악하듯 “외모와 감정까지 서울놈”이요 “철두철미 도회인”¹⁴⁾인 심훈은 공교롭게도 ‘에로·그로·넌센스’¹⁵⁾

13) 『일기』, 앞의 책, 609쪽.

14) 『필경사잡기』, 앞의 책, 505쪽. 심훈은 1934년 소설 <적녀성>을 『조선중앙일보』에 연재하고 받은 고료로 당진군 부곡리에 직접 설계하여 집을 짓는데, 택호를 ‘필경사(筆耕畝)’라고 정한다. (『연보』, 앞의 책, 635쪽 참고.)

15) ‘에로’는 ‘에로티시즘’, ‘그로’는 그로테스크의 약자로 ‘에로 그로 넌센스’는 192,30년대 도시화 되어 가던 식민지 조선에서 유행한 용어였다. 당시 유행의 첨단을 쫓아가던 모던보이들에게 ‘에로 그로 넌센스’는 모던의 본질로 이해되었다고 한다. (소래섭, 『에로 그로 넌센스 - 근대적 자극의 탄생』, 살림, 2005, 7-11쪽 참조)

의 매혹으로 충만한 도시와 결별하고, 비모던한, 그래서 여전히 ‘조선적인’당진으로 내려간다.¹⁶⁾ “술과 실연과 환경에 대한 환멸과 생에 대한 권태와 그리고 회색의 인생관을 주었을 뿐”¹⁷⁾인 도회의 삶을 청산하고 “모든 도회의 소음과 온갖 문화의 시설과는 완전히 격리된 원시시대”¹⁸⁾인 당진에서 다시 소설을 쓰는 심경을 심훈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나는 어려서부터 문예에 뜻을 두었다. 시를 쓰는 체 각본을 꾸미는 체하고 영화박이는 흉내도 내고, 여러 해 보람 없는 저널리스트 노릇을 하다가 최근에는 엉뚱하게도 적어도 삼, 사만의 독자를 상대로 하는 신문에 서너 차례 나의 장편소설을 쓰고 있다. (중략) 그러나 나는 이기적인 고독한 생활을 무위하려는 것도 아니요 또한 중세기적인 농촌에 아취가 생겨서 현실을 도피하려고 ‘필경사’ 속에다 청춘을 감금시킨 것이 아니다. 다만 수도원의 수녀와 같이 무슨 계획을 꾸미다가 잡혀가서 근 십년 독방생활을 하는 셈만 치고 도회의 유희과 소위 문화지대를 벗어나 다시금 일개의 문학청년으로 돌아가려는 것이다. 일단식반의 생활이라도 내 손으로 지탱해 나가면서 형극의 길을 제일보로부터 고쳐 걸으려는 것이다.¹⁹⁾

당진행을 선택하고 소설로 회유하던 무렵 심훈은 자신의 문학 혹은 문화 행위에 대한 반성 및 당대 문학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다. 「필경사잡기」에서 그는 스스로를 향해 “어쭙지 않은 사회봉사, 입에 발린 자기희생, 그리고 어떠한 주의에 노예가 되기 전에 맨먼저 너 자신을 응시하여라! 새로운 생활에 말뚝을 모래성 위에 꽂지 말고, 질척질척한 진흙 속에다가 박아라. 떡에질을 해서 깊이깊이 박아라!”²⁰⁾고 주문하는

16) 심훈 전집에 실린 연보에 의하면 1932년 당시 충남 당진에는 1년 전(1931년) 낙향한 심훈의 양친이 거주하고 있었다. (『심훈문학전집』 3, 609쪽 참고)

17) 「필경사잡기」, 『심훈문학전집』 3, 505쪽.

18) 「필경사잡기」, 앞의 책, 503쪽.

19) 「필경사잡기」, 앞의 책, 505-506쪽.

20) 「필경사잡기」, 앞의 책, 506쪽.

가 하면, 생활(현실)이나 실천과 유리된 민족주의 문학과 프로문학 양 진영을 모두 비판하고 있다. 「1932년의 문단전망 - 프로문학에 직언」에서 심훈은 과거 역사에서 소재를 취하는 민족주의 문학 진영에 대해 “우리가 눈 앞에 당하고 있는 좀 더 생생한 사실과 인물을 그려서 대중의 가슴에 실감과 감격을 아울러 못박아 줄만한 제재를 골라가지고 기교껏 표현할”²¹⁾것을 요구하는 한편, 프로문학 진영에 대해서는 프로작가와 프로문학이 실제 무산계급과 유리되었음을 비판한다.

이제까지의 프로작가는 그 대부분이 작가로서 귀중한 체험이 적다고 봅니다. 들떠어놓고 농민, 노동자의 옹호자 같은 구문으로 일을 삼으나 그 자신이 결코 프롤레타리아는 아니외다. (중략) 허덕이는 무산계급과는 그네들의 실제생활과 감정이 너무나 상거가 먼 것 같습니다. (중략) 프로예술운동이 일어난 지 여러 해 동안에 팔목할 만한 작품이 나오지 못하고, 나왔다 하더라도 개념적이요 팜플렛 직역식이 되고 마는 원원이 이 점에 있다고 봅니다.²²⁾

염군사의 일원이었고 이후 카프에 잠시 가담하기도 했으나 실상 심훈은 당시 프로예술 진영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1932년의 문단전망 - 프로문학에 직언」에서 뿐만 아니라 1928년 발표한 논쟁적 평문 「우리 민중은 어떠한 영화를 요구하는가 - 를 논하여 「만년설」군에게」에서 그는 “막시즘의 견지로써만 영화를 보고 이른바 유물사관적 변증법을 가지고 키네마를 척도하려함은 예술의 본질조차 파악하지 못한 고루한 편견에 지나지 않는다”²³⁾는 견해를 밝힌다. 카프의 강령과는 거리가 있는 발언이다.

그렇다면 자신의 문학 행위는 물론 시조나 역사소설 창작에 몰두하는 민족주의 문학, 예술을 압도하는 이념에 경도되거나 무산계급의 실생활

21) 「1932년의 문단전망 - 프로문학에 직언」, 앞의 책, 565쪽.

22) 「1932년의 문단전망 - 프로문학에 직언」, 앞의 책, 567-568쪽.

23) 「우리 민중은 어떠한 영화를 요구하는가」, 앞의 책, 533쪽.

및 감정과 유리된 프로문학을 비판하고 ‘당진행’과 본격적 ‘(장편)소설 창작’을 선택한 심훈 옥망의 일단을 여기서 읽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은 곧 이상과 생활의 조화, 현실과 유리되지 않는 문학에 대한 열망일 것이다. “대중과는 하등 교섭이 없는”²⁴⁾ 문학을 비판하고 하방한 농촌에서 심훈은 이념적 민중이 아닌 실재하는 민중을, 생활과 밀착된 문학 창작에 대한 의지를 내보인다. 심훈이 톨스토이를 높이 평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심훈에게 톨스토이는 ‘신념과 행동의 일치’에 성공한 작가이며 때문에 불일치를 경험하는 자신을 부끄럽게 만드는 “간 큼직한 인간”²⁵⁾, 위대한 작가였다.

톨스토이에 대한 심훈의 지지는 일찍이 문학습작기부터 확인된다. 습작기 심훈의 일기에는 톨스토이의 <부활>과 <성욕론>을 읽었다고 기록돼 있다. 한편 톨스토이와 더불어 초창기 심훈의 독서 기록에서 유독 눈에 들어오는 이름은 ‘구니기타 돗포’이다. 1920년을 전후한 무렵 문학에 막 눈 뜨기 시작한 심훈은 구니기타 돗포의 <운명론자>를 읽었고, 일기에 다음과 같이 쓴다. “나는 獨步의 글을 제일 좋아한다. 단명(單明)하고 힘이 있고 진(眞)의 예술인 까닭에”²⁶⁾.

심훈이 ‘진(眞)의 예술’을 구현한 작가로 평가한 돗포는 누구인가. 가라타니 고진은 『일본 근대문학의 기원』에서 그를 ‘풍경을 발견’한 작가로 평가하고 있다. 일본 문학사에서 자연주의 문학의 선구자이며 이상주의적 낭만주의자로 평가받는 돗포는 당시 상당한 대중적 인기를 누렸지만, 청일전쟁 종군기자로 참가한 다음 해, 기존의 “문학의 언어로 뒤떨어진 곳이 아닌 신세계”²⁷⁾를 찾아 ‘훗카이도’로 이주한다. 오래 전부터 ‘아이누인’이 거주하고 있던 훗카이도의 광활한 들판에 도착한 돗포는 “사회가 어디에 있는가, 인간이 자랑스러운 얼굴로 전하는 역사가 어디 있는가”라고

24) 「우리 민중은 어떠한 영화를 요구하는가」, 앞의 책, 543쪽.

25) 「수상록」, 앞의 책, 509쪽.

26) 「일기」, 앞의 책, 605쪽.

27) 가라타니 고진 저, 박유하 역, 『일본 근대문학의 기원』, 민음사, 1996, 11쪽.

자신의 느낌을 밝힌다.²⁸⁾ 그러므로 고진은 ‘풍경’의 발견이란 결국 역사와 타자의 배제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며, 이때 타자는 인간이 아닌 단순한 풍경으로 존재한다고 설명한다. 타자를 풍경으로 전유하고, 타자를 나(주체)와 동화시키는 낭만주의는 그래서 민족주의와 친연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²⁹⁾ ‘타락한’ 귀족의 반대편에서 ‘건강한’ 농민을 발견한 톨스토이와, 홋카이도와 아이누인들을 ‘풍경’으로 발견한 구니기타 돗포의 경우를 참조하는 것은 심훈의 당진행과 소설 <상록수>를 이해하는데도 유용하리라 생각된다.

한편, 농촌 혹은 고향의 농민을 통해서 이념적 민중이 아닌 실재하는 민중을 재현하고자 했으나 그들을 하나의 풍경으로, 즉 새로운 ‘동포(민족)’로 표상한 심훈의 <상록수>를 해석하기 위해서 192, 30년대 식민지 조선의 지적 풍경들에 주목할 필요도 있다. 특히 당시 문화적 민족주의 담론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리라 판단되는데, 주지하다시피 심훈의 <상록수>를 당선작으로 선택한 인물은 1935년 당시 『동아일보』의 편집국장으로 있던 이광수였고, 이광수와 『동아일보』는 192,30년대 ‘개조’와 ‘경쟁’담론의 주체들이었다. 1922년 『개벽』에 발표한 대표적 논설 「민족개조론」(1922. 5)에서 이광수는 조선인의 “타락된 민족성”³⁰⁾을 “허위, 무신(無信), 비사회적 이기심, 사회성의 결핍”(24쪽), 한 마디로 도덕성 결핍으로 진단했고, “민족의 근본적인 악성격을 가장 소량으로 이어받은 사람들, 즉 소수의 선인 중에서 한 사람”(26쪽)이 중심이 되어 민족을 개조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도덕성 결핍의 조선인들을 ‘현실태’로 규정하고 “소수의 선인”들에 의해 조선인들의 근본적 악성격이 치유된 “문명한 일개인”(34쪽), 건강한 민족성을 담지한 ‘조선 민족’이라는 ‘기능태’를 상상한 것이 이광수가 주장한 개조론의 내용이었다.

28) 가라타니 고진, 앞의 책, 11쪽.

29) 가라타니 고진, 앞의 책, 32~48쪽 참고.

30) 이광수, 「민족개조론」, 『한국근대비평사의 쟁점』, 동성사, 1986, 22쪽. 이하 인용은 페이지 수만 표시함.

4년의 거리를 두고 최현배가 『동아일보』에 연재한 「조선 민족 갱생의 도」(1926. 12. 26) 역시 「민족개조론」의 연장선에 있다. 이조 오백년 동안의 악정이 배태한 조선의 질병을 의지의 박약함, 용기의 없음, 활동력의 결핍, 의퇴심의 많음, 신념의 부족, 도덕심의 타락 등으로 규정한 최현배는 ‘갱생’을 위해서 신교육의 정신, 계몽운동, 체육 장려, 도덕의 성장, 민족 고유문화의 발양 등을 주장한다.³¹⁾ 김철의 지적대로, 생활개선이나 의식 혁명에 국한된 갱생의 문법은 근본적으로 식민 제국의 틀을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민족의 자족적 영역을 구축하는 것이기도 했다.³²⁾

현실태로서의 조선 민중을 응시하는 심훈의 태도 역시 이와 크게 다른 것은 아니었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그의 발언 속에는 개조와 갱생의 ‘대상’으로 조선 민중을 바라보는 식민지 지식인의 태도가 역력히 담겨 있다.

조선인종의 질투심이며 권리의 쟁투라는 망국의 근원되는 성질과 버릇은 할 수 없다. 누백대 부패한 조종의 유전인가? 아! 이천만이란 여러 형제가 일심으로 나아가고 전력하여 기초를 닦으며 앞길은 뚫어야 할 것을 이 악혼의 본성으로 인하여 나오려는 새싹을 순지르고 말터인가! 다시 두렵고 쓸쓸하고 쓰린 암흑시대로 돌아가려는가! 33)

그러다가 금년에 와서는 두레를 보는 관점이 변해졌다. 조식으로 만나고 사이 좋게 지내던 아래 웃 동리가 합하기만 하면 반드시 시비가 나고, 시비 끝에는 싸움으로 끝을 마친다. 그것은 유식 무식간에 두세 사람만 모여도 자그라들거리고 합심단결이 되지 못하는 조선놈의 본색이라, 씨알머리가 밍기도 하려니와, 한 편으로 돌이켜 생각하면 가엾기가 짝이 없다. (중략) 그네들의 혈색없는 「우리에게 육체와 정신의 영양을 달라!」고 부르짖을 줄 모른다. 자기네의 빈곤과 무지를 아직도 팔자 탓

31) 김철, 「갱생(更生)의 도(道) 혹은 미로(迷路)」, 『민족문학사연구』 통권 28호, 2005. 8, 314-315쪽 참고.

32) 김철, 앞의 글, 320쪽.

33) 「일기」(1920년 3월 24일), 『심훈문학전집』 3, 606쪽.

으로만 돌릴 뿐. 오오 형해만 남은 백만 천만의 숙명론자여! 그대들은 언제까지나 그 숙명을 짊어지고 살려는가? 중추신경이 물러앉은 채로 그 누구를 위하여 대대손손 이 땅의 두더지 노릇을 하려는가?³⁴⁾

식민지의 엘리트 심훈에게 조선인종은 누대로 유전된 “악혼의 본성”을 지닌 “숙명론자”들이다. 이는 20년대를 통과해 30년대에 접어들어도 여전히 극복되지 않은 악성격이며, 식민의 현실을 타개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파악된다. 조선 민중을 바라보는 심훈의 이러한 시선은 문명(교육)으로 ‘악성격’을 치유한 소수의 선인들, 즉 식민지 지식인들의 공통된 시선이며³⁵⁾, <상록수>의 두 주인공 박동혁과 채영신이 담지한 시선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농촌’ 혹은 ‘고향’이란 바로 이 일방적 시선의 주체들인 식민지 지식인들이 개조를 통해 갱생한 ‘순결하고 건강한 민족’을 상상하는 성소(聖所)가 아니었을까. 특히 강렬한 이념의 시대가 가고 새로운 중심의 부재 속에서 부유하던 1930년대 식민지 지식인들에게 고향(농촌)은 도시의 오염에 훼손되지 않은 순수한 원형공간이면서 동시에 개조되고 변형되어야 할 미래의 공간, 나아가 누추한 자신들의 현재를 망각할 만큼 유토피아적 비전으로 충만한 공간으로 발견된다.³⁶⁾ 이 발견된 고향(농촌)의 계보 속에 <상록수>의 한곡리와 청석골이 있으며, 새로운 조선 민족으로 재구되는 한곡리·청석골의 농민들이 있다. 그렇다면 심훈의 <상록수>가 전유한 농촌과 농민의 구체적 실상은 어떠한가.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자.

34) 「二月初 하룻날」, 앞의 책, 496-497쪽. 「二月初 하룻날」을 쓴 정확한 연도나 날짜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당진의 생활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아 1932년 이후에 집필된 것으로 판단된다.

35) 이념적 지향의 다름에도 불구하고 식민지 지식인들 대부분이 이러한 시선을 공유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식민지 지식인들이 취한 이념적 노선에 따라 그 원인에 대한 파악이나 극복방안에 대한 시각이 달랐다고 판단된다.

36) 김철, 「프로레타리아 소설과 노스텔지어의 시공」, 『근대의 문화지리 - '고향'의 창조와 재발견』,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제25차 한국문학 국제학술회의, 2006. 2, 124-131쪽 참고.

Ⅲ. 구별 짓기의 정치학 - 언어 · 복장 · 질병의 수사

‘농민소설’로 분류되지만 <상록수>의 주인공은 사실 농민이라기보다 농민을 계몽하는 지식인 청년들을 초점화한 소설이다. 계몽의 주체인 박동혁이나 채영신은 어떤 인물인가. 소설의 주 무대인 ‘한곡리’가 고향인 박동혁이나 동해 근처의 두메 출신인 채영신 모두 농촌에서 태어나 도회지로 이동해 문명의 세례를 받고 다시 농촌으로, 고향으로 돌아온 인물들이다. 이 순환의 과정을 통해서 “상놈인 박가의 자식”³⁷⁾ 동혁이나 농촌의 가난한 홀어미의 딸 영신은 근대적 지식을 습득한 “지식분자”(23쪽)로 속신한다. ‘문명인’으로 거듭난 그들에게 고향은 더 이상 낮익은 장소가 아니다. 근대(문명)를 모범적으로 학습한 이들의 눈에 한곡리나 청석골은 그들의 출발지였던 고향이라기보다 미개한 “원시부락”(22쪽)이나 미개척의 낯선 “처녀지”(97쪽)로 발견된다.

문명화된 도시에서 근대적 지식을 학습하던 ‘학생’ 채영신과 박동혁은 이 처녀지에서 새롭게 ‘교사’로 변신한다. 일찍이 이광수의 <무정>에서부터 식민지 지식인과 대중의 관계로 설정된 ‘사제관계’는 1930년대 <상록수>에 와서 재연된다. 근대적 문명을 착실하게 학습한 학생이 아닌, 브나로드 운동을 통해 문명인 동족들의 계몽에 전신하는 교사로서의 역할을 부여받은 그들은 도회지를 떠나 농촌으로 귀환한다. “조선 사람이 제 힘으로 다시 살아나기 위한 기초공사”(23쪽)를 닦는 “선구자”(40쪽)로 스스로를 재규정한 동혁이나 영신은 한곡리와 청석골을 ‘개조’ 하고 ‘개량’하기 위한 사업에 착수한다. 개조의 주요한 방향은 물질보다 “모든 것을 지배하고 온갖 행동의 원동력이 되는 정신”(23쪽)이다. 교육을 통해 민족의 악성격을 먼저 개조한 ‘소수의 선인들’인 박동혁과 채영신은 불투명하고 모호한 각각의 조선 인민들, 즉 청석골·한곡리의 농민들을

37) 심훈, <상록수>, 『대표한국문학전집』, 신홍서관, 1983, 119쪽. 이하 작품 인용은 페이지 수만 표시함.

개조된 ‘문명인들’로 갱생시키려는 의지로 충만하다. 전근대적 습속을 개량하고 타락한 민족성을 개조한 이들을 통해서 귀향한 지식인들은 건강하고 순결한 ‘민족’이라는 균질적 집단을 상상한다.

오염되지 않은 순일한 민족에 대한 이들의 욕망은 ‘민족인 것’과 ‘민족이 아닌 것’을 철저히 구별 짓는 견고한 이분법을 발동시킨다. 영신이나 동혁과 같은 식민지 지식인들이 민족이라는 동질적 ‘자기’를 구성하는 방식은 일제라는 외부적 타자와의 거리두기가 아니라 내부적 타자를 적극적으로 배제하는 것이다. 이들은 곧 계몽의 적(敵)이요 민족의 이물(異物)들이 된다. 이 내부적 타자들의 목록 속에 백현경이나 강기만, 강기천과 같은 인물들이 있다. <상록수>가 이들을 축출하는 방식은 무척 흥미롭다. 그들은 조선적인 것과 서구적인 것, 전근대적인 것과 근대적인 것이 어지럽게 착종된 일종의 ‘혼종들’로 표상된다. 언어·복장·음식 등 다양한 생활의 세목들을 통해 <상록수>는 이들에게 부자연스러운 혼종의 표지를 기입한다. 그 중심에 있는 인물이 백현경이나 강기만과 같은 지식인 부류들이다. 개혁·계몽의 진정한 주체로 스스로를 규정한 영신과 동혁은 백현경이나 강기만과 같은 지식인의 형상으로부터 자신들을 분절해 내면서 식민지 지식인의 층위를 새롭게 구성하려는 강박을 내보인다.

<상록수>가 기독교 연합회 총무이며 영신의 조력자로 설정된 백현경을 재현하는 방식은 시종일관 부정적이다. 백현경은 유학을 다녀오고, 세계일주를 했으며, 농촌운동을 하는 여류 웅변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말썽 많은 과거를 지니고 있으며 “개인 문제로 크나큰 이야기거리를 제공하”(29쪽)는 스캔들 제조자이기도 하다. 동혁을 “미스터 박”, 영신을 “미스 채”로 부르며 조선어 사이사이에 ‘영어’를 흔하게 섞어 쓰는 그녀는 독신이면서도 고급스러운 “문화주택”(34쪽)에 살고, “라이스카레와 오물렛 같은 양식”(34쪽)을 즐겨 먹는, 말하자면 ‘조선’이라는 얼굴에, 향락적이고 소비적인 ‘서구(근대)’라는 가면을 쓴 부정적인 신여성의 전

형이 된다. 때문에 그녀의 침실을 몰래 훑쳐보는 남성 계몽 주체인 동혁의 시선 속에서 신여성 백현경은 기생과 별반 다르지 않은 실상을 지닌 존재로 강동된다.

여자의 더구나 독신으로 지내는 여자의 침실을 들여다 보는 것이 실례인 줄 모르는 것은 아니나, 주인이 제가 앉은 바로 맞은쪽의 미닫이를 열고 드나들기 때문에 자연 눈에 띄는 데야 일부러 고개를 돌릴 까닭도 없었다. 그러다가, 『왜들 얘기도 안하고 있어요? 자, 이것들이나 들으면서 우리 저녁을 먹읍시다.』 하고 귀중품인 듯 빨간 딱지가 붙은 유성기판을 들고 나오는데, 그 등뒤를 보니까 옷목에 반 간 통이나 되는 체경이 달려 있다. 동혁은 속으로, (오오라, 체경에 비쳐서 또 다른 방이 있는 것 같은 걸 몰랐구나.) (기생방이면 저만큼이나 차려 놔을까?) 하면서도, 은근히 영신이를 기다리느라고 고개를 돌리곤 한다. (34쪽)

이러한 백현경과 수시로 대비되는 것이 채영신이다. <상록수>는 양장을 하고 영어와 조선어를 섞어 쓰며 문화주택에 화려한 독신으로 사는 백현경과, ‘조선옷’을 입고 아이들에게 ‘조선어’를 가르치며, 두메산골인 ‘청석골’에서 “개인의 향락을 위해 허비되는 것을 모조리 사업에 투여” (83쪽)하는 영신을 병치시키면서, 그녀를 긍정적인 신여성상으로 부조한다. 영신 역시 동혁이라는 남성 계몽 주체와 조우하면서 정신적 조력자였던 백현경과의 거리 조절에 들어가고, 동혁과 더불어 도시를 떠나 농촌에 투신할 결심을 하게 된다.

백현경과 채영신의 병치를 통해서 신여성의 층위를 나누고, 그들을 각각 긍정과 부정의 표상으로 제시한 <상록수>는 다시 박동혁과 강기만을 대비시킴으로써 식민지 남성 지식인 역시 서열화한다. 강기만을 민족의 이물로 타자화하는 방식은 백현경과 그리 다르지 않다. 지주의 아들이자 일본 유학을 다녀온 엘리트이나, 조흔한 아내와 이혼하고 무위도식하는 강기만은 백현경과 마찬가지로 조선적인 것과 근대의 오염이 혼란스럽게 뒤엉긴 인물이다. 조선어에 일본어나 영어가 섞인 ‘혼란어’를 구

사하는 그는 동네 청년들에게 “말과 당나귀 사이에서 태어난 트기”(63 쪽)인 “노새”라는 별명으로 불린다. 궁벽한 한곡리에서 양복과 레인코트를 차려 입고 다니는 부자연스럽고 우스꽝스러운 인물로 형상화된 강기만은 육체적으로도 허약하다. 언어와 복장에 이어 ‘질병’의 수사는 <상록수>가 진(眞)과 위(僞)를 가르고, 동족과 동족 아닌 것을 구별하는 주요한 방식이다.

병을 얻어 유학을 접고 고향 한곡리로 내려와 있는 강기만과 나란히 놓이는 것이 건강한 상민의 아들인 교사 박동혁이다. 소설은 시종일관 동혁의 건강성을 강조한다. 육체는 동혁이 담지한 정신의 건강함을 증거하는 거울이 된다. <상록수>에서 동혁은 다음과 같이 영신이 처음 그를 만났을 때의 건강함이나 태도를 내내 잃지 않는 인물로 그려진다.

그 구릿빛 같은 얼굴……황소처럼 건강한 체격……거기다가 조금도 꾸밈 줄 모르면서 허끝으로 불길을 뿜어 내는 듯한 열변……그리고 비록 처음 만났으나 어두운 길거리로 제 뒤를 따라다니며 보호해 주면서도 조금도 비굴하거나 지나친 친절을 보이지 않던 그 점잖은 몸가짐…… (31쪽)

반면 <상록수>에서 가장 부정적인 가계로 그려지는, 한곡리의 지주이자 고리대금업을 하는 강씨 일가는 대개가 병약하며 결국 병으로 죽거나 방탕한 삶을 살아간다. 타락한 도덕성을 개조하지 못하고 갱생에 실패한 인물들로 그려지는 강기천·강기만의 아버지는 간암으로 죽고, 강기천은 성병으로 죽게 되며, 강기만 역시 일그러진 삶을 살아간다. 이들을 배제하고 박동혁이나 채영신이 진정한 민족으로 발견한 자들은 과연 누구인가.

IV. 아이들 혹은 동족(同族)의 발견

‘문명화된 일개인’으로 변신한 동혁과 영신에게 한곡리와 청석골의 농민들은 ‘문맹(文盲)’이라는 단일한 형상으로 포착된다. 한만수에 따르면, 문맹이란 단어는 문자를 해독하지 못한 상태를 시각장애와 동일시하는 은유로 근대에 생겨난 것이다. 문자를 해독하지 못한 구술 대중들은 근대로 접어들면서 비정상적이거나 근대에 미달된 존재로 인식되었다. ‘문맹퇴치운동’은 근대적 문자매체를 통한 근대 사상 유포를 문명화(근대화)의 유력한 수단으로 찾았던 지식인들이 문자를 모르는 대다수의 대중을 근대성 최대의 장애이자 구체해야 할 대상으로 설정한 것이라고 한만수는 지적한다.³⁸⁾

<상록수>에서 조선 인민들의 알레고리인 한곡리와 청석골의 농민들은 근대화의 반대편에 있는 문맹인 ‘토인(土人)’들로 호명되며, 근대적 성장을 이루지 못한 불구적인 존재, 힘없는 약자로 전치된다. 이 약자들의 중심에 ‘아이들’이 있다. 영신이나 동혁이 문맹 퇴치, 곧 문명화의 대상으로 불러낸 존재가 바로 이 아이들이며, 한곡리·청석골의 농민들 역시 ‘아이와 같은 존재’로 낭만화 된다. 계몽 주체들은 그들이 낭만적으로 전유한, 약자이지만 오염되지 않은 순결한 아이들, 혹은 아이와 같은 존재들을 통해서 ‘진정한’ 민족을 상상한다. 사실 이러한 계몽 주체들의 욕망은 낮선 것이 아니다. 근대계몽기부터 근대의 기획자들은 아이들을 조선의 습속에 가장 적게 길들여진 순결하고 건강한 존재들로 재구(再構)했고, 이들과 ‘미래’라는 근대적 시간을 결합하면서 완전히 ‘개명진보’한 조선과 조선인을 선택했다. 국가와 국민이 이미 불가능한 1930년대를 사는 심훈은 한곡리·청석골의 아이들을 통해서³⁹⁾ ‘민족’을 재사유하고 있

38) 한만수, 「식민지 시기 검열과 1930년대 장애우 인물 소설」, 『한국문학연구』 제 29호,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2005, 이해령, 「신문·브나로드·소설」, 『한국근대문학연구』, 한국근대문학회, 2007. 2, 167쪽 재인용.

39) 김경연, 「근대계몽기 여성의 국민화와 가족-국가의 상상력-『미일신문』을 중심

다.

이런 점에서 강습소 기부금을 마련하기 위해 영신이 개최하는 ‘학예회’장면은 매우 흥미롭다. 아이들은 학예회라는 근대적인 학교 축제를 통해 노동과 구별된 근대적 ‘유희’를 배우며, 어른들은 난생 처음 접하는 신기한 구경거리를 통해서 단지 ‘작은 어른’이 아닌, ‘아이다움’을 지닌 그들의 아이들과 새롭게 조우한다. 영신은 학예회라는 근대적 장치들 통해서 글눈도 뜨고 창가도 유희도 할 줄 아는 새로운 아이들을 전시함으로써 문명화 교육의 효과를 홍보한다.

그러나 실상 이러한 교육이란 동혁이나 영신이 하는 말과 글을 수동적으로 ‘따라’ 읽고 ‘베껴’ 쓰는 과정이며, 때문에 이들의 문명화 교육은 필연적으로 아이들이나 아이들로 표상된 한곡리·청석골 사람들의 자기 목소리를 침묵시키고, “앵무새처럼 선생의 입내를 내는”(124쪽) 수많은 동혁과 영신을 새롭게 생산하는 일이 된다. 말하자면 계몽 교육 또는 문명화란 이질적인 타자들을 동일한 ‘자기’로 전유하는 식민화의 장치인 것이다.

<상록수>는 이 ‘자기화’에 다시 위계를 설정한다. 근대의 초입, 서구 따라잡기를 시도했던 동양의 지식인들 거개가 ‘문명의 연령’이라는 사회 진화론의 논리에 기초해 ‘야만-반개-문명’의 단계를 설정하고, 상위 단계로의 성장(발전)에 강박되었듯이,⁴⁰⁾ <상록수>에서 아이들은 교육(문명화)의 정도에 따라 하급반에서 상급반으로, 다시 청년으로 성장하며, 이 성장의 최정점에는 아이들과 청년들이 “선생으로 숭앙하는”(50쪽) 동혁과 영신이 위치해 있다. ‘문맹(야만)인 아이들이나 ‘반개(半開)한 청년들은 ‘문명’한 동혁·영신에 도달함으로써 성장을 완성하게 된다. 그러므로 청석골과 한곡리의 계몽사업은 스스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자율적 ‘개인’이 아니라, 각자의 차이를 지우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전신하는 ‘동혁

으로, 『한국문학논총』 제45집, 2007. 4, 228-230쪽 참조.

40) 고모리 요이치 지음, 송태욱 옮김, 『포스트콜로니얼』, 삼인, 2002, 34-35쪽 참조.

들'과 '영신들', 곧 '집단적 주체'로 성장하는 것이다. 동혁의 기상 나팔소리에 일어나 일사분란하게 운동장에 모여 함께 '체조'를 하고 '애향가'를 부르는 다음의 장면은 이러한 성장을 의미심장하게 재현한다.

셋된 기상 나팔 소리는 황금빛 햇살이 퍼지듯이 비 뒤의 티끌 하나 없는 공기를 찢으며, 온 동리의 구석 구석에 퍼진다. 배춧잎 노동복을 입은 청년들이 여기저기서 초가집을 튀어 나오더니 언덕위로 치달는다.

나팔 소리가 난 지 오 분쯤 되어 그들의 운동장인 잔디 밭에는 중년, 청년, 소년 할 것 없이 한 오십여 명이나 되는 조기회원들이 그득 모여섰다. (중략) 정말 체조가 시작되는 것이다. (중략) 십오분 동안에 체조를 마치고 동녘 하늘을 향해서 산천의 정기를 다 마셔들일 듯이 심호흡을 한 뒤에 청년들은 동그랗게 손을 잡고 둘러섰다. 이번에는 건배가 한 가운데 우뚝 나서며, 『자, 애향가를 부릅시다!』하고 뽕나무 막대기를 지휘봉 대신으로 내젓기 시작한다. (52쪽)

동혁을 중심으로 함께 기상하고 체조하며 애향가를 부르는 이 동질적인 집단이 최대의 적으로 겨냥하는 것은 '개인주의'다. "개인의 향락을 위해서 허비되는 시간"(83쪽)을 온통 공공의 "사업"(83쪽)에 바치는 영신은 약혼자 정근에게 "개인주의를 버리고 어느 기회에든지 농촌이 아니면 어촌이나 산촌으로 들어가"(136쪽) 동족을 위해 헌신하라고 요구한다. 그런데 개인주의를 버리고 물질보다는 정신을 앞세우는 집단에 대한 강조는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파시즘으로 변질될 수 있으며, 식민 제국의 논리와 의도하지 않게 공모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리의 '농우회'가 '진흥회'⁴¹⁾로 탈바꿈 하는 장면은 매우 문제적이다.

류양선은 농우회가 진흥회로 흡수되지만 농우회 회원 거의 전원이 진흥회 역원 대부분을 차지하고, 진흥회의 회장 자리를 식민성 지주인 강기천에게 넘겨주는 대신 대개 소작인들인 농우회 회원들의 빛을 탕감한

41) 진흥회란 1920년대 이후 총독부가 기획한 농촌진흥운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단체이다.

점을 들어 궁극적인 농후회의 승리로 해석하지만,⁴²⁾ 이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된다. 비참한 한국리의 현실을 초래한 첫 번째 원인으로 동혁이 지적하는 것은 ‘고리대금업’이며, 농민들의 주적(主敵)으로 지목하는 인물은 강기천과 같은 식민성 지주이다. 이 대목에서 농촌을 황폐화시킨 식민 제국인 일제는 배경으로 한참 물러나 있다. 진흥회 역시 동혁을 포함한 농우회 회원 대부분이 흡수되었다 하더라도, 더 이상 농우회 회원일 수 없는 그들은 진흥회의 논리로부터 더 이상 자유로울 수 없다. 작품의 종반부에 총독부가 조선의 농촌에 건설한 전시 부락인 ‘모범촌’을 무심히 둘러보는 동혁의 태도는 그래서 예사롭지 않다.

<상록수>에서 동혁의 동생으로 등장하는 ‘박동화’는 이런 측면에서 주목된다. 교육 받지 못한 그는 항상 술에 취해 있는데, 동혁이 유일하게 계몽에 실패한 인물이기도 하다. 진흥회로 넘어간 농우회 건물을 불태우고 만주로 달아나는 박동화의 문제성을 <상록수>는 광기와 도주로서 둘러 봉합하지만, 동혁이나 식민 제국, 그 어디에도 완전히 포섭되기를 거부하는 박동화의 존재는 <상록수>에서 흔치 않은 이질적 목소리이다.

V. 계몽운동의 젠더 - ‘쌍두취행진곡’에서 ‘최후의 일인’으로

기왕의 <상록수>연구는 영신의 죽음에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실제 인물인 ‘최용신’을 모델로 했다는 소설의 이면사로 하여 영신의 죽음은 줄곧 최용신의 죽음을 재현한 것으로 파악되거나, 기독교적인 의미망 속에서 해석되어 왔다. 그러나 사실에 구속되기보다 <상록수>라는 허구적 재현물 내에서 영신의 죽음을 좀 더 섬세하게 읽어낼 필요가 있다. 영신의 죽음은 <상록수>가 상상한 민족의 진정한 주인(중심)이 누구인가를

42) 류양선, 앞의 글, 25-26쪽.

응변하는 상징적 장치일 수 있기 때문이다.

계몽의 주체, 혹은 교사로서의 여성인물은 우리 근대소설에서 그리 흔한 형상은 아니다. 소설 속 대부분의 인물들을 ‘사제 관계’로 배치한 이광수의 <무정>에서도 온전한 교사의 형상은 ‘이형식’과 같은 남성 계몽 주체였다. 영채를 근대적으로 각성시키는 김병욱 같은 여성인물이 등장하긴 하나, 주지하다시피 소설의 중반부에서 김병욱 역시 이형식을 교사로 승인하는 학생이 된다. 때문에 동혁과 더불어 계몽의 한 축을 이루는 ‘교사-채영신’의 존재는 이채롭다.

이미 살펴본 바 있듯이, <상록수>에서 영신은 백현경과 대비되는 긍정적인 신여성의 전형으로 부각된다. 심훈이라는 남성 작가, 또는 박동혁이라는 남성 주체의 시선을 통과한 영신은 “연애를 하는데 소모되는 정력이나 결혼 생활을 하느라고 또는 개인의 향락을 위해서 허비되는 시간을 온통”(83쪽) 계몽 사업에 바치면서, 가정이라는 사적영역 내에서의 아내이자 어머니의 자리를 포기하고, 청석골 아이들과 청년들, 그리고 여성들의 새로운 어머니가 되고자 한다. ‘공적인 어머니’로서의 영신은 성적인 구별이 지워진 무성적(無性的)인 존재인 동시에, 일종의 ‘여성-남성’인 혼성적(混性的) 존재이기도 하다. ‘교사’이자 ‘지도자’라는 공적인 지위를 부여받은 그녀는 줄곧 여성이면서도 남성을 환기하는 인물로 재현된다. 예컨대 남성인 동혁보다 “언권을 먼저 주지 않았다고 말하기를 딱 거절하”(30쪽)는가 하면 사내처럼 웃고 말하며, 무엇보다 남성인 동혁과 대등한 계몽의 주체로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하고자 한다. 때문에 영신은 의식적·무의식적으로 동혁의 한곡리와 자신의 청석골을 비교하며 자신이 하는 계몽 사업의 성과를 기뻐한다.

“한곡리에서는 농우회관을 낙성하였다는 소식을 들은 영신은 슬그머니 성벽이 나서, (청석골은 그보다 곱절이나 큰 학원 집을 짓고야 말겠다.)는 야심이 불 일 듯하였다.”(121쪽)

계몽 사업에서 연인이자 동지이기도 한 동혁의 성과에 밀리지 않겠다는 영신의 ‘야심’은 남성 주체인 동혁에게는 일종의 ‘허영심’으로 이해된다.

한편으로 그가 영신을 될 수 있는 대로 호의로써 이해하려는 것도 물론이다. 그만한 나이에 다른 여자들 같으면 몸치장이나 하기에 눈이 벌겍고, 돈 있고 소위 사회에 명망 있는 결혼을 못하면, 첩이라도 되어서 문화생활을 할 공상과, 그렇지 않더라도 도회지에서 땀 안 흘리는 조촐한 직업도 많건만, 유독 <채영신>에게는 다만 한 가지 허영심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청석 학원을 온전히 저 한 사람의 힘으로 번듯하게 지어놓고, 교장 겸 고스카이 노릇까지 하더라도, 내가 이만한 사업을 하고 있노라.) 하고 백현경이나 다른 농촌 운동자들에게 보여 주고, 애인인 저에게도 자랑하고 싶은 그 허영심만이 충만한 것이 틀림없으리라하였다. 그러니까 자기의 사업이 기초는 어느 정도까지 잡혔더라도, 외형으로 눈에 번쩍 띄우는 것을 만들어서 보여 주기 전에는 저를 청석골로 부르지 않으려는 그 여자다운 심리가 들여다보이는 것 같았다. (106쪽)

계몽에 대한 영신의 열정이 남성 주체인 동혁에게는 일종의 ‘허영심’이나 ‘여자다운 심리’의 일단으로 해석되는 지점에서 영신의 죽음은 새삼 문제적으로 읽힌다. 동혁을 만나고, 동혁이 청혼을 한 이후 일과 사랑 사이에서 고민하는 영신의 갈등은 소설이 진행될수록 더욱 심화된다. 물론 이러한 갈등은 대부분 영신의 몫이다. 동혁이라는 남성 주체를 만나면서, 백현경과 같은 영신의 여성 조력자의 지위는 강등되고, 동혁과의 사랑이 깊어지면서 기독교에 대한 영신의 믿음 역시 중요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외로운 것은 어찌하나. 이다지도 지향 없이 헤매는 마음을 어디다가 붙들어맨다는 말이나?) (너에게는 신앙이 있지 않느냐.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불러왔고, 그의 독생자에게서 희생과 봉사의 정신을 배웠고, 가장 어려울 때에, 주를 부르며 아침 저녁 기도를 올리지 않았느냐?) (그렇다. 그러나 이제 와서는 무형한 그네들을 믿는 것만으로는 도

저히 만족할 수가 없다. 사람을 믿고 싶다. 육안으로 보이는 좀더 똑똑한 것, 확실한 것, 즉 과학을 믿고 싶다! 직접적으로 실험할 수 있는 것을, 노력하는 정비례로 그 효과를 눈앞에 볼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하고 싶다! (180쪽)

동지로 만났으나 연인으로 발전했고 그녀를 다시 배우자로 맞이함으로써 영신을 사적인 영역 내로 재위치시키고자 하는 동혁의 욕망과, “조선의 인텔리 여성으로서 따로이 해야 할 사업이 있”(180쪽)으며, “결혼이 그 사업을 방해한다면 차라리 연애도 결혼도 하지 말아야 한다”(180쪽)는 영신의 욕망은 순조롭게 합치되지 못한다. 영신은 동혁과의 결혼을 유예하고 청석골 아이들의 어머니 역할도 잠시 반납한 채, 일본으로 유학을 떠난다. 더욱 충실한 계몽 사업을 위한 유학이지만, 심훈이 영신의 유학을 처리하는 방식은 결코 긍정적이지 않다. “조선을 등지고”(195쪽) 떠난 유학길에서 영신은 그녀를 죽음에 이르게 한 각기병을 얻게 돼 다시 청석골로 돌아온다.

청석골로 돌아온 영신은 마지막까지 교육을 위해 헌신하다 청석골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죽는다. 소설은 죽음이라는 미학적 장치를 통해 공적인 욕망을 포기할 수 없었던 혼성적인 여성의 갈등, 영신 내부의 이질적인 목소리들, 영신이라는 부자연스러운 여성의 흔적을 성스럽게 봉합한다. 영신의 죽음을 통해 동혁이라는 남성 주체 역시 사랑 혹은 연애라는 개인주의를 청산하고 “아무 데도 얽매이지 않는 몸을 오로지 농촌 사업에만 바치려는”(219쪽) 계몽의 단일한 주체로 부상한다. 동혁과 영신의 ‘쌍두취행진곡’으로 시작된 <상록수>는 ‘최후의 일인자’인 동혁을 소설 속에 선명하게 기입하면서 끝이 난다.⁴³⁾ 이로써 민족주의의 젠더, 계몽운동의 젠더는 좀 더 선명해진다. 최후의 일인으로 남은 동혁은 영신이 떠난 청석골에서 영신을 따르던 청년회의 ‘원재’와 ‘형제’로 결속하

43) <상록수> 1장의 제목은 ‘쌍두취행진곡’이며 마지막 14장의 제목은 ‘최후의 일인’이다.

고, 모범촌을 들러 계몽 운동의 “지도분자들과 굳게 악수를 하고, 하룻밤씩 같이 자면서 의견을 교환하고, 새로운 방침을 토론”(221쪽)하면서 형제애를 다지는가 하면, 자신을 배반한 의형제 ‘건배’를 다시 만나 형제애를 복구한다. 영신이 사라진 자리에서 동혁은 계몽 사업에 뛰어들어 형제들과의 결속을 더욱 강화하며, 소설은 동혁과 형제들, 이 남성 영웅들의 무리가 계몽의 진정한 주인, 순결한 민족의 중심임을 환기한다. 영신이 죽고 ‘아무 데도 없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몸이 된 동혁은 이제 한국리나 청석골을 떠나 이동하며 전 조선을 ‘애향가’가 울려퍼지는 ‘고향으로 발전하려는 웅대한 포부를 내보인다. 최용신의 모델이 아니더라도 영신은 동혁이라는 위대한 남성 영웅의 탄생, 민족 계몽의 진정한 주인의 출현을 위하여 끝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

(이제부터 한국리에만 들어앉았을 게 아니라 다시 일에 기초가 잡히기만 하면, 전조선의 방방곡곡으로 돌아다니며 널리 듣고, 보기도 하고, 또는 내 주의와 주장을 세워보리라. 그네들과 긴밀한 연락을 취해서 같은 정신과 계획 아래서 농촌 운동을 통일시키도록 힘써 보리라.) (221쪽)

동혁의 걸음은 차츰차츰 빨라졌다. 숨가쁘게 잣배기를 넘으려니까, 회관 근처에서 애향가를 떼를 지어 부르는 소리가 바람결을 타고 웅장하게 들려 오는 듯하여서 그는 부지중에 두 팔을 내저었다. 그리고는 동혁의 초가집들을 내려다보며, 오랫동안 떠나 있던 주인이 저의 집 대문간으로 들어서는 것처럼 『에헴 에헴!』하고 골짜기가 울리도록 커다랗게 기침을 하였다. 그의 눈에는 회관 앞마당에 전보다 몇 곱절이나 뻑뻑하게 모여선 회원들이 팔다리를 벌렸다 오무렸다 하며 체조를 하는 광경이 보였다. (중략) 앞으로 가지가지 새로이 활동할 생각을 하며 걷자니, 그는 재풀에 어깻바람이 났다. 회관 근처까지, 다가온 동혁은 누가 <엇둘! 엇둘!> 하고 구령을 불러 주는 것처럼 다리를 쑥쑥 내 뻗었다. 상록수 그들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었다. (224쪽)

VI. 맺음말

기왕의 <상록수> 연구는 크게 세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이 소설이 담지한 저항적 계몽성을 규명하거나 실제와 허구 사이의 길항 및 간극을 확인하는 작업, 그리고 <상록수>가 영화로 만들어진 사실에 주목하여 소설의 영화화에 따른 매체적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었다. 방향은 각기 다르나 ‘농촌계몽소설’이라는 <상록수>의 의미 규정을 모두 자명한 것으로 인정한 접근이었다. 본고는 이러한 자명성에 대한 의문으로부터 시작하였다. 말하자면 ‘농촌계몽소설’이라는 매끄러운 규정을 농촌, 계몽, 소설로 분리시키고 이것이 ‘농촌-계몽-소설’로 결합되는 과정을 추적해보고자 한 것이다. 이 과정은 <상록수>를 텍스트로 삼는 동시에 ‘심훈’을 텍스트화 하는 작업이기도 했다. 심훈이라는 텍스트를 해석하지 않고 <상록수>가 담지한 ‘농촌-계몽(민족)-소설’의 친연성을 규명하기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때문에 본고는 먼저 식민지와 제국, 민족이라는 특수성과 (사회주의) 이념이라는 보편성, 문학과 문화(영화·연극) 사이를 끊임없이 유동했던 심훈이 1930년대 충남 당진으로 하방한 이후 연극이나 영화가 아닌 문학으로, 즉 장편소설 창작으로 선회한 사실에 주목했으며, 그를 농촌, 민족, 소설로 이끈 계기들에 주목했다. 이는 물론 농촌-민족-소설이 합체된 <상록수>를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지점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남는다. 예컨대 톨스토이나 구니기타 돛포, 그리고 심훈의 독서 이력에서 주목되는 투르게네프 등의 소설과 심훈 소설의 연관성 및 영향관계는 앞으로 충분히 논의되어야 할 과제라 생각된다.

<상록수>는 당대 최고의 모던보이였던 심훈의 돌연한 농촌행과 소설 창작에의 전념, 그 회유(回遊)에 개입된 심훈의 욕망과 브나로드 운동을 장편소설로 결산하려는 『동아일보』의 욕망이 행복하게 조우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식민지 조선의 알레고리인 농촌의 농민들을 통해서 조선 인

종의 근본적 악성격을 해소한 미래의 조선 민족을 상상하는 재현물은 ‘소설’이라는 장치를 반드시 필요로 했으며, 『동아일보』가 브나로드 운동의 성과를 마무리하는 장르로 소설을 선택한 것 역시 당연한 일이었다. 민족이라는 상상의 공동체를 재현하는데 신문이나 소설의 역할 및 협력 관계는 익히 알려진 바이다. 1935년 『동아일보』 장편소설 공모에 당선된 <상록수>는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키는 셈이다. 심훈은 <상록수>를 통해서 민족인 자들과 민족이 아닌 자들을 구별 짓고, 아이들 혹은 아이들과 같은 자들로 표상된 순결한 민족을 구상하며, 이 집단적 정체를 이끄는 주체의 성별을 환기한다.

앞으로 <상록수>가 발표된 1930년대 중반을 전후한 무렵부터 다량으로 쏟아져 나온 농촌(향토) 혹은 고향 재현 서사물들로 논의를 확대시키고, 그 확대된 논의의 자장 속에서 <상록수>를 새롭게 조명해 보는 작업 또한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재현 주체들의 욕망과 재현의 시대적 맥락 속에서 농민은 때론 민족으로, 프롤레타리아트 전위로, 또는 황국 신민으로 부단히 거듭나야 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농촌 혹은 고향은 식민지 후반기 지식인들의 시선에 의해 줄곧 발견된, 식민지 엘리트들의 다양한 욕망이 들끓고 쟁투하는 문제적 공간일 것이다. 말하자면 식민지 지식인들이 발견한 처너지, 곧 그들의 새로운 식민지가 바로 농촌 혹은 고향이었던 것이다.

주제어 : 식민지 지식인, 농촌(고향), 민족, 소설, 회유, 구별 짓기, 아이들, 계몽, 젠더

참고문헌

1. 자료

- 『심훈문학전집』 3, 탐구당, 1967.
<상록수>, 『대표한국문학전집』, 신홍서관, 1983.

2. 참고논저

- 구수경, 「심훈의 <상록수>고」, 『어문연구』 제19집, 어문연구학회, 1989.
12, 435-449쪽.
- 김경연, 「근대계몽기 여성의 국민화와 가족-국가의 상상력-『미일신문』
을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제45집, 2007. 4, 209-238쪽.
- 김구중, 「<상록수>, 허구/역사가 교접하는 서사의 자아 변화 연구」, 『한
국문학이론과 비평』 제6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1999, 125-
153쪽.
- 김종욱, 「<상록수>의 '통속성'과 영화구성원리」, 『외국문학』, 1993 봄호,
148-163쪽.
- 김 철, 「갱생(更生)의 도(道) 혹은 미로(迷路)」, 『민족문학사연구』 통권
28호, 2005. 8.
- _____, 「프롤레타리아 소설과 노스텔지어의 시공」, 『근대의 문화지리
- '고향'의 창조와 재발견』,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제25차
한국문학 국제학술회의, 2006. 2, 117-140쪽.
- 김화선, 「한글보급과 민족형성의 양상」, 『어문연구』 제51집, 어문연구학
회, 2006. 8, 63-87쪽.
- 류양선, 「<상록수>론」, 『한국현대문학연구』 제4집, 한국현대문학회,
1995. 2, 7-34쪽.
- _____, 「심훈의 <상록수> 모델론-상록수로 살아있는 사랑의 여인상」,

- 『한국현대문학연구』 제13집, 2003. 6, 241-267쪽.
- 박선미 『근대 여성, 제국을 거쳐 조선으로 회유하다』, 창비, 2007.
- 이혜령, 「신문·브나로드·소설」, 『한국근대문학연구』, 한국근대문학회, 2007.2, 165-196쪽.
- 정진석, 『일제하 한국언론투쟁사』, 정음사, 1975.
- 주 인, 「심훈 문학 연구 방법에 대한 서설」, 중앙대 『어문논집』 제 34집, 2006, 249-269쪽.
- 최원식, 「심훈연구서설」, 『한국근대문학사의 쟁점』, 창작과비평사, 1990.
- 한기형, 「습작기(1910~1920)의 심훈」, 『민족문학사연구』, 2003년 상반기.
- 가라타니 고진 저, 박유하 역, 『일본 근대문학의 기원』, 민음사, 1996
- 고모리 요이치 지음, 송태욱 옮김, 『포스트콜로니얼』, 삼인, 2002.

<Abstract>

The Return to Rural Community · Ethnic · Novel in 1930s

- The Study on Sim Hun's novel 『The Evergreen Tree』

Kim, Kyung-Yeon

This thesis studied the close connection of the rural community, ethnic and novel focused on Sim Hun's novel 『The Evergreen Tree』. Sim Hun was the elite group of colonial and a modern boy in era 1920~1930s. But he moved to Dangin from Seoul in 1932. He created 『The Evergreen Tree』 on Dangin in 1935. 『The Evergreen Tree』 was the prizewinning work in the prize contest sponsored by the newspaper publishing company 『The Dong-A Daily News』. This study considered the method of organizing the peasantry of 'Hangoklee' and 'Cheonseakgol' as a nation in 『The Evergreen Tree』. Sim Hun supposed the farmers of 'Hangoklee' and 'Cheonseakgol' as the pure and active nation in 『The Evergreen Tree』. Sim Hun imagined the farmers of 'Hangoklee' and 'Cheonseakgol' would be the future of Korea on the colonial period. Sim Hun excluded the negative and extravagant people from a nation in order to suppose the farmers of 'Hangoklee' and 'Cheonseakgol' as a pure and active nation. And this thesis studied the connection between nationalism and gender concentrat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an leader of enlightenment 'Park Dong Hyeok' and the woman leader of enlightenment 'Chae Young Sin'.

Key Words : elite group of colonial, rural community (home land),
nation, novel, return, discrimination, children,
enlightenment, gender